

##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 1. 교육과정의 개념

#### - 교육과정 어원

'교육과정(教育課程)'은 영어로 'curriculum' 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currere: 달리다'와 'culum(cule): 과정'의 합성어다. '달리다'라는 'currere(쿠레레)'와 '과정'이라는 'cule'의 어원에 비추어보면 'curriculum'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이나 사람이 달려야 하는 과정이나 코스로 'a race course'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학교에 적용한다면 'a course of study'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학교의 교과과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학교에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 또는 학습자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습하도록 학교가 계획한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것은 말이나 사람이 경주하는 동안 거쳐 지나가는 과정이나 학습의 과정을 뜻하는 'process'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거쳐 지나가야 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습해야 하는 '내용', 즉 학습해야 하는 '뭉'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한자로 '教育過(지날과)程'이라고 쓰지 않고 '教育課(매길과)程'이라고 쓴다.

#### - 교육과정 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설명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야 하는 교과 또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학습자가 학습하는 내용은 시대나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그것은 각 시대나 사회가 갖는 교육적 이상이나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나 우리가 전수해야 하는 문화 또는 지식에 대한 이해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육과정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상세히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급했던 것처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나 정의,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학습자나 지식, 사회 등에 대한 이해와 기본 가정,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

### 2.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의의와 구성

#### 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의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받은 후 11, 12 학년에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 능력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여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고등학교 2, 3학년에 새로 도입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뿐만 아니라 흥미나 장래 진로를 감안하여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라는 의미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다양하고,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에 학교 교육이 대응해 나가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실천 과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선택과목을 단위학교가 어떤 식으로 개설·이수시키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성패가 좌우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고등학교 학습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 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인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국어 등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기초적, 공통적, 일반적, 핵심적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를 잘 배우고 이수하였다는 전제 위에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학생 각자 지니고 있는 소질과 적성, 관심과 능력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선택과목은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늘어났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목이 공통필수 포함 70개 과목에서 제 7차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과 10과목 포함 총 90여 개 과목으로 대폭 늘어났고, 특히 심화선택과목은 전문교과에 개설된 과목에서 차용, 활용한다고 하면 그 수는 단위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 이와 같은 선택과목의 확대는 학생들 임의의 선택가능성을 넓게 되고 이의 수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회의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과목선택 결정권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교에서의 대비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종래의 공통필수 또는 과정필수에 해당하는 과목이수 지정의 선택권을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교 3년간 이수단위 구성을 단순화시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총 이수단위는 144단위로, 선택과목에 136단위, 특별 활동에 8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표-〈제7차 교육과정 이수단위 구성〉

학년구분	10학년(고1)	11학년(고2)	12학년(고3)	비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교과 10과목 56단위			총 이수단위 216단위
선택중심 교육과정		-일반선택과목 24단위 이상 -심화선택과목 112단위 이하		
재량활동	12단위			
특별활동	4단위		8단위	

## # 일반적 특징

(1)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을 뚜렷이 구분하고 과정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식 과정구분을 폐지하고 선택중심 이수과정으로 이수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양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으로 구성된 일반선택과목과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화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선택과목은 심화선택과목 이수를 위한 기본과목의 성격이 강하므로 24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최소단위 수를 규정하였고, 5개 과목 군별로 최소이수기준을 제시하여 교과목의 균형적인 이수를 보장하고 있다.

(3) 선택과목의 수가 일반선택과목 26과목, 심화선택과목 53과목 등 79과목으로 늘어나 제 6차 교육과정 60과목에 비하여 다양해졌다.

(4) 학생선택중심의 비중을 이전 교육과정보다 늘렸다. 또한 선택권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 28단위 이상, 학교지정 28단위 이상, 학생선택을 최대 50%(68단위)로 하여 학생과 학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교육과정 해설에서 '학생 선택을 최저 28단위, 20% 이상은 보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주로 11~12학년에 편성, 운영되며, 교과와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보통 교과목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적성, 소질 계발에 도움이 되는 '심화 선택 과목'으로 2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설하였다.

## < 선택 과목의 구분과 의미 >

○일반선택과목: 교과 영역간의 학문적 과목으로서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이며 학생의 균형 있는 선택을 위하여 과목 군으로 나뉘어져 있음

○심화선택과목: 전공의 기초가 되거나 각 교과목의 심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져 있음

### \*인문·사회 과목군 : 국어, 도덕, 사회 관련 과목

-국어과 : 화법(6), 독서(6), 작문(6), 문법(6), 문학(6), 매체 언어(6)

-도덕과 : 현대 생활과 윤리(6), 윤리와 사상(6), 전통 윤리(6)

-사회과 : 한국 지리(6), 세계 지리(6), 경제 지리(6), 한국 문화사(6), 세계 역사의 이해(6), 동아시아사(6), 법과 사회(6), 정치(6), 경제(6), 사회·문화(6)

### \*과학·기술 과목군 : 수학, 과학, 기술·가정 관련 과목

-수학과 : 수학의 활용(6), 수학 I(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수학 II(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과학과 : 물리 I(6), 화학 I(6), 생명 과학 I(6), 지구 과학 I(6), 물리 II(6), 화학 II(6), 생명 과학 II(6), 지구 과학 II(6)

-기술·가정과 : 농업 생명 과학(6), 공학 기술(6), 가정 과학(6), 창업과 경영(6), 해양과학(6), 정보(6)

### \*체육 과목군 : 체육 관련 과목

-체육과 : 운동과 건강 생활(4), 스포츠 문화(4), 스포츠 과학(6)

### \*예능 과목군 : 음악, 미술 관련 과목

-음악과 : 음악 실기(4), 음악과 사회(4), 음악의 이해(6)

-미술과 : 미술과 삶(4), 미술 감상(4), 미술 창작(6)

\*외국어 과목군 : 외국어 및 제2외국어 관련 과목

- 외국어과 : 영어 I(6), 영어 II(6), 실용 영어 회화(6), 심화 영어 회화(6), 영어독해와 작문(6),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6)
- 제2외국어과 : 독일어 I(6), 독일어 II(6), 프랑스어 I(6), 프랑스어 II(6), 스페인어 I(6), 스페인어 II(6), 중국어 I(6), 중국어 II(6), 일본어 I(6), 일본어 II(6), 러시아어 I(6), 러시아어 II(6), 아랍어 I(6), 아랍어 II(6)

\*교양 과목군 : 한문 및 교양 관련 과목

- 한문과 : 한문 I(6), 한문 II(6)
- 교양 : 생활과 철학(4), 생활과 논리(4), 생활과 심리(4), 생활과 교육(4), 생활과 종교(4), 생활 경제(4), 안전과 건강(4), 진로와 직업(4), 환경(4)

### 3.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배경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체제에서는 선택과목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가로서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능력과 다양한 사고력을 길러야만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계열선택권이 소극적으로 주어졌기는 하였다. 그러나 학생이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는 길이 거의 열려져 있지 않아서 자신의 결정에 의한 교과학습은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필수교과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다소간 벗어나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목중심의 교육과정을 과거보다 강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 교육과정을 선택과목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대학입학시험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어서 외국의 경우를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 추세는 과거보다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해서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등 12개 항목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에서는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특기와 적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필수교과의 축소, 선택과목의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교육과정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요컨대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급속한 사회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구조의 변혁과 교육수용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 1) 세계적 경향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교육에서의 집중화, 규격화, 획일화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주도 필수교과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경향이다.

외국의 경우, 고등학교 상급학년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1)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key stage 4단계(14~16세) 학생들은 7개 교과(국어, 수학, 과학, 체육, 현대 외국어, 디자인과 기술, 정보기술)만 필수로 이수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과목은 선택이며, 16세 이후의 고등학생(12~13학년)들에게는 필수과목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 (2)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영역'과 이수학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각 교육구가 졸업이수과목과 학점을 결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3년간의 국어와 사회, 2년간의 수학, 과학, 체육, 그리고 1년간의 예능 혹은 외국어 등 모두 6개 교과영역을 필수로 부과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는 7개 교과영역을 필수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필수 교과목영역이 주어진다든 것은 우리나라처럼 '수학1', '국사' 등의 구체적인 과목이 부과된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각 교과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 (3) 일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80단위(특별활동 제외) 중 34~45단위(42.5~56.3%) 정도를 자유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11개 필수과목 중에서도 7개 과목은 필수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 (4)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최근에 필수과목 이수시간 수를 크게 축소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Mater Christi College의 경우에는 필수과목 이수비율을 9학년의 경우 81%에서 29%로, 10학년에서는 71%에서 29%로 축소하였다. 빅토리아 주는 11~12학년에 7개 '교과영역'을 필수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시설 및 교사확보의 정도 등 학교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각기 다양한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마다 이수한 과목과 학습량이 다르게 된다. 이로써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는 개인별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이제까지의 초중등학교

전체 19페이지 중 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 선택중심교육과정

저작시기 : 2008-11

등록시기 : 2010-05-08

자료형태 : hwp, pdf

분 류 : 교육학

출 처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10911768/>

--- 주의 사항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